



1월의 기도

1. 성탄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누구나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풍 성히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2. 2026년 모든 것이 평온한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널리 퍼져나가는 또 하나의 원년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 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3. 고향과 가족을 떠나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낄 모든 선교사 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고, 현지 교회와 공 동체 안에서 따뜻한 연합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새해에도 선교사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성령 의 충만함을 누리며, 모든 사역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 라 담대히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4. 천국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영훈 목사님 과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을 모시고 중단없는 세 계선교활동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올려 드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dhanunjay 님께서 후원 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만세 전에 예정된 성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5:2)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생 기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 것인가에 대해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이 나시기 6백여 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서 어떻게 나실 것에 관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 한 후 예수님께서 지상에 초림하실 때까지의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의 성탄을 위해 준비한 데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만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여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세계 역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 나 이 변화는 단순한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마지막 승리의 순간을 향 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구 속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역사의 변화에 요동침이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의 오심을 예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매우 중 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 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 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 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 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 내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 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Januar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2025년 해외성회

<2025 지저스 뮤직 페스티벌 인 오키나와>



일본 일천만 구령 운동을 이루기 위한 ‘2025 지저스 뮤직 페스티벌 인 오키나와 대 성회’가 24일 일본 오키나와 나하문화예술극 장에서 이영훈 담임목사를 주강사로 개최됐 다. DCEM이 주관하고 순복음일본총회와 순 복음동경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대성 회에는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부터 최남단 오 키나와까지 전국 각지에서 1500여 명의 목회 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성회를 이뤘다.

올해 처음 열린 ‘지저스 뮤직 페스티벌’은 총재 조용기 목사의 유지를 계승, 다음 세대 를 향한 문화·예배 중심의 축제로 새롭게 재 정립한 사역이다. 오키나와현 30여 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 준비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이른 오후부터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공연장을 가 득 메웠다. 예배에 앞서 진행된 뮤직 페스티 벌에는 10개 교회 13개 팀이 찬양과 악기 연 주, 위십과 부채춤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 며 큰 호응을 받았다.

공연 시작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건 물 밖까지 이어졌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 을 잡고 들어서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 다. 힘찬 드럼 연주로 막을 연 1부 음악회는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북소리가 나하홀 전 체에 울려 퍼지며 분위기가 단숨에 고조됐고, 이어 레이를 걸친 순복음동경교회 홀라엔젤 팀이 일본과 미국 전통이 어우러진 독특한 스 타일의 위십을 선보였다. 한편 오키나와은혜 교회 성도들의 무대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르 신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찬양하며 세대가 하 나 되는 장면이 펼쳐졌다. 관객들은 환한 미 소와 박수로 화답했다. 뒤이은 순복음동경교 회 ‘마이 앙상블’은 아코디언·기타·타악기가 어우러진 따뜻한 CCM찬양을 들려주며 공연 장의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었다. 살롬 하프팀의 무대도 큰 감동을 안겼다. 19명의 연주자가 청아한 하프 선율을 울려 퍼뜨리자,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깊은 울림이 공연장 안 을 가득 채웠다. 공연 후반부에는 굿피플 무 용팀의 부채춤이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피날레는 순복음동경교회 베들레헴 성가대 가 장식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영혼의 갈망을 채우 기 위해 다섯 번이나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했 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 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영원한 생명수 되시 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인류의 참된 희망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크리스천이 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령으 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한 이영



훈 목사는 “교회 부흥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 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본 땅에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 의 역사가 일어나 100배의 부흥이 이루어지 길 바란다”고 선포했다.

참석자들은 큰 박수와 함께 ‘아멘’을 외치 며 절대 공정의 믿음과 고백으로 일본 일천만 구령 운동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했다. 설교 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일본 교회의 부흥과 일천만 구령 운동 완수를 위해, 일본 전역이 성령의 은혜로 덮이도록 주여 삼창 후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다. 이 어 정동균(기하성 총회장)·히가 모토후사(이 토만시사이드채플)·키나 마사히로(오키나와 세계선교교회)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DCEM 사무총장 및 순복음일본총회장 시 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이영훈 목사님과 함 께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에서부터 홋카이도 까지 우리 세대에 일천만 구령 사역을 완수하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키나와에서 열린 이번 대규모 연합 문화 집회는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잊지 못할 은 혜와 감동을 남겼다.

아직 희망이 있다

그들이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46'52절)

아래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디매오는 그 일생에서 그 장님이 눈을 뜬다는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좋은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돌아 올랐습니다. 여러 분,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못 삽니다. 독에 쌀을 잔뜩 부어놓아도 그 가슴에 희망이 없으면 독에 있는 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지, 세상 양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바디매오는 동전을 구하고 살았지 희망은 들락 날락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희망을 발견하고 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다. 그 어떤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영원한 용서가 있고, 영원한 의로움이 있고, 영원한 치료가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부활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절망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좌절감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언제나 희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적인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오종복음과 삼중축복을 꿀풀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의와 정결함과 치료와 아브라함의 복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성령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저주받게 하고, 말씀으로 축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이므로, 입술의 말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매오가 예수님 곁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네 눈이 열려서 볼지어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번쩍 뜨여서 사물을 보게 될 때, 예리고 성문 밖에 아주 좋은 자리가 있는 것을 도로 돌아갔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았은즉,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길 위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바디매오는,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바디매오처럼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요,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2. 아직 희망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시편 120편 1절에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부르짖으니까 응답을 하셨더라. 잠잠 뻘뻘 마십시오. 남에게 시끄럽게 한다고 숨을 죽여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르짖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어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시편 18편 6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바디매오는 겹옷을 버리고 예수께 뛰어 나갔습니다. 유대 땅은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밤이 되면 외투로 걸었던 겹옷을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거지로 살아가는 바디매오에게는 겹옷은 전 재산이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자 미련 없이 겹옷을 던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디매오의 꿈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믿음이 굳건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디매오처럼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3.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한복음 10장 9절)”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다. 다른 데 목을 내밀고 찾지 말라. 네가 숨 쉬는 곳에 내가 있고, 네가 고통받는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 나를 너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를 받아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스트레스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해요. 스트레스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다스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와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절망함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스트레스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 길 위의 인생

이 바디매오는 맹인 거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우리 사람은 누구나 절망을 상속받은 인간들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 질병과 가난 그리고 죽음을,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인간의 삶이 저주

○... ‘2025 지저스 뮤직 페스티벌 인 오키나와’ 이모저모



Jesus Music Festival 2025 in Okinawa

日時 2025년11월24일(月)
開場: 17:00 | 開演: 17:30

場所 那覇文化芸術劇場なは一と大劇場
〒900-0015
沖縄県那覇市久茂地3丁目26-27

講師 李永勲 牧師
(ヨイド純福音教会 担任牧師)

主催:DCEM | 共催:純福音日本総会, 純福音東京教会 | 協賛:沖縄県全牧師会



- 1 DCEM사무총장·순복음동경교회 담임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와 동경교회성가대
- 2 순복음오키나와 은혜교회의 남녀노소가 함께 찬양하며 세대가 하나 되는 장면
- 3 ‘2025 지저스 뮤직 페스티벌 인 오키나와’ 현지 포스터
- 4 19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살롬 하프팀의 연주 찬양
- 5 오키나와 특유의 문화적 색채가 강한 오키나와 전통공연
- 6 좌 이영훈 목사 우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2025년 한 해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희 DCEM은 천국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영훈 목사님을 모시고 세계 선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된 성탄과 풍성한 새해를 맞이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의 기쁨이 항상 넘쳐 나시길 기도합니다.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S. SUGAKI